

光州日報 연중 캠페인  
**함께 할수록 커지는 문화 나눔**  
**Hand in Hand**

<제2부> 문화 향기 현장속으로  
 <30> 우제길 미술관 '감+촉... 프로젝트'

# “장애인들과 ‘함께 사는 세상’ 만들어 봐요”



광주 세광학교에 다니는 재호(12)와 친구들은 지난 5일 모처럼 미술관 나들이를 했다. 무등산 자락에 위치한 우제길 미술관에 들어선 아이들은 선생님과 자원봉사자들의 손을 잡고, 작품을 감상하기 위해 벽 쪽으로 다가갔다. 아이들은 촉촉으로 만든 도마뱀을 이리 저리 만지며 즐거워했다. 부드러운 기저귀천으로 만든 인형을 전시한 고보연 작가의 ‘느린 호흡으로 산보하자’를 손으로 만지던 아이들은 꼭신꼭신한 인형을 꼭꼭 누르기도 했고, 바로 옆에 걸린 설치 작품인 주머니의 향긋한 냄새를 맡아보곤



“사탕이 들어 있다”며 좋아했다. 또 신문지 데미에 숨겨진 스피커를 통해 심장 뛰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작품을 귀를 기울이면 아이들은 쿵쿵거리는 소리에 깜짝 놀라면서도 신기한 듯 작품 앞을 떠나지 않았다.

### ‘마음’으로 하는 작품 감상

시각장애인의 아이들은 이날 비록 ‘눈’으로 작품을 볼 수는 없었지만 눈 대신 손과 코와 귀, 그리고 ‘마음’으로 작품을 감상했다. 미술 감상은 다른 예술 장르와 달리 전적으로 ‘시각’에 의지하는 경우가 많아 시각장애인들이 가장 접근하기 어려운 장르로 여겨졌다. 이날 미술관 체험은 아이들에게 정말 색다른 경험이었다. 이날의 특별한 전시 감상은 우제길 미술관이 복권기금의 지원을 받아 지난 10월부터 진행중인 ‘감+촉(감성+촉각)-시각장애인과 장애인 소통 프로젝트’ 프로그램 일환이었다. 전시회 참여작가인 김강석·김주연·노정숙·박윤숙·이병

중·우제길·최양선씨 등 10여명의 작가들은 시각이 아닌 ‘촉각’과 ‘후각’, ‘청각’으로 감상할 수 있는 작품들을 내놓았다. 전시장에 걸린 작품들은 모두 손으로 직접 만져볼 수 있도록 했고 작가들은 작품의 훼손(?)을 기꺼이 감수했다. 작품 감상을 마친 아이들은 직접 작품을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아이들은 도마뱀 모형을 ‘손’으로 일일이 만져가며 멋진 작품을 만들어갔다. “도마뱀을 만들어 보라고 했더니 지렁이를 만들었네(웃음)”, “촉촉으로 동물을 만들어 보는 건 처음인데 재미있어요.”, “네 도마뱀은 왜 이렇게 길쭉해.” 아이들은 선생님과 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아가며 정성들여 작품을 만들어나갔고, 어떤 작품은 시각 장애인의 작품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멋졌다. 참가자들은 또 관화작가 노정숙씨가 시각장애인들이 직접 손으로 감촉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든 엠보싱 관화지를 이용해 동판화 작업을 해보기도 하고, 미술관 밖에서는 종이 만들기 체험도 진행했다. 특히 이날 체험 현장에는 수업 차 미술관을 찾았던 동산대 시각디자인학과 학생들이 아이들의 좋은 길라잡이가 돼 함께 그림도 감상하고 작품도 만들면서 도움을 줬다.

### 장애인과 소통...체험 공간 제공

‘감+촉(감성+촉각)’전은 시각장애인 뿐 아니라 일반 미술관객들에게도 의미 있는 행사였다. 미술관측은 전시장 입구에 유도블럭을 설치하고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휠 지팡이를 비치해 사람들이 시각장애에 대해 한번쯤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또 전시장 한편에는 진시영·김명우 작가가 세광학교 학생들의 생활 모습과 수업 과정 등을 담은 영상 작품을 전시, 비장애인들에게 ‘함께 사는 세상’에 대한 생각거리도 던져줬다. 체험 프로그램은 일반 초등학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도 진행됐다. 아이들은 눈에 안대를 하고 눈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작품을 감상했다. 또 세광학교 아이들이처럼 손으로도 마뱀 모형을 만져가며 자신만의 작품을 만드는 과정도 체험했다. 이날 아이들을 인솔한 세광학교 고민정 교사는 “우리 아이들은 작품을 손으로 일일이 만져보면서 감상이야 하는데 자유롭게 감상할 수 있는 이런 전시회가 광주에는 없어 아쉬웠다”며 “작품도 감상하고 다양한 체험도 해볼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우제길 미술관 변기숙 학예실장은 “이번 프로그램은 시각장애인에게 촉각, 후각, 청각을 이용한 다양한 미술 감상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일반인들도 이 프로그램을 통해 시각 장애에 대해 이해심을 높이고, 다양한 감각을 활용한 창의적 발상을 경험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 신나는 예술여행

문화 바꾸쳐 11·12월 프로그램 다양

저소득층에게 문화 관람 혜택을 제공하는 ‘문화 바꾸쳐’를 위탁 운영하고 있는 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11월과 12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오는 12월 말까지 2008년 문화바꾸쳐 사업을 마무리하는 문진위는 연극, 클래식, 콘서트 등 다양한 작품을 준비, 바꾸쳐 이용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혔다. 광주에서는 좀처럼 만나기 어려운 클래식 공연인 백건우(사진) 피아노 리사이틀(23일 광주문예회관)이 눈길을 끌며 서울 대학교에서 폭발적인 인기몰이를 중인 코믹 연극 ‘라이어 1탄’(21~22일 5·18기념문화센터)도 재미있게 관람할 수 있는 작품이다. 또 서울 공연 전회 매진을 기록한 장사의 소리관 ‘꽃구경’(12월 21일 광주문예회관) 역시 놓치면 후회할 작품이며 극단 청춘의 ‘입주자를 찾습니다’(28일~29일 공연일번지)도 바꾸쳐 대상작이다.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는 ‘과학체험 뮤지컬 ‘우주여행’(29~30일 광산문예회관)이 있으며 ‘루벤스 바로크 걸작전’(23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도 가족들이 관람하기에 좋다. 대상자는 ‘신나는 예술여행’(www.artstour.or.kr)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반액 할인된 가격으로 다양한 작품을 관람할 수 있다. 문의 062-382-2234.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지난 5일 우제길 미술관을 찾은 세광학교 어린이들이 손으로 작품을 만지며 감상하고 있다. 오른쪽은 감상을 마치고 시각장애인들이 직접 만든 도마뱀 작품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후원: Land Life Love 한국토지공사 한국전력공사

## 코스몰 패션타운 탄생!

상무지구 개관상권의 심장부 '코스몰'에서 시작하십시오.

백화점	4F	중대교(2007년)
리무진, 호텔	3F	리무진, 호텔
백화점	2F	백화점
스몰쇼핑몰	1F	리무진, 호텔

중국의 조희철 박원  
 초프리미엄급 상권

문의: 062-372-2114

## 당신의 발은 건강하십니까?

발의 건강을 지키는 최고의 방법... 수제화 & 세네슈

수제화 & 세네슈

발의 건강을 지키는 최고의 방법... 수제화 & 세네슈

문의: 062-372-2114